

| 글. 김성환 Kim, Sung-whan
 • 건축디자이너

땅이 가지는 의미

Topography of Terror
 (Topographie des Terrors)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최근 한국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다.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많은 이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 또한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 나름의 언어로 역사를 기억하고자 한다. 한국만큼 아픈 과거를 지닌 독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스처로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또 기억해나가려 하고 있다.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 (Topography of Terror, Topographie des Terrors)>은 나치 시절의 기록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설계공모부터 건축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완공된 그곳의 의미를 짚어본다.

■ 걷어내며 걷는 도시, 베를린 그리고 <Topographie des Terrors>

베를린은 지난 역사가 만들어낸 수많은 켜가 도시 공간 안에 묻혀 있다. 거리를 따라 걸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근현대역사의 수많은 흐름과 흔적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다. <Topographie des Terrors>는 그 역사가 남겨 놓은 현재의 베를린과 가장 밀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930년대 이후 나치 후반기에 조직적으로 구성된 독일 정치경찰(Gestapo)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프로젝트의 대상지는 당시 제국 보안본부(Das Reichssicherheitshauptamt, RSHA)가 있던 곳으로, 현재 포츠다머 플라츠(Potsdamer Platz)와 가까우면서 마틴 그로피우스 하우스(Martin-Gropius-Bau)가 바로 옆에 위치한 곳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업지역으로 사용되던 곳을 1987년 당시 베를린 건립 750주년을 기념하여 2010년까지 세 번의 공모전을 통하여 완공되었다. 베를린에서 수많은 박물관 및 전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곳은 현재 “테러의 땅, 정범의 장소”로 일반인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 피터 Zumthor(Peter Zumthor)의 생각과 좌절

피터 Zumthor(Peter Zumthor)는 1993년 당시 첫 번째로 진행된 공모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니멀한 건축적 어휘를 콘크리트 및 나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특성과 연결하여 하나의 공간 안에서 빛과 그림자가 연속되는 켜(Layer)의 개념을 제안, 공모전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는 설계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초과된 것을 알고 자신이 제안한 비용에 맞춰 완공할 수 있는 회사를 찾지만 실패하고 만다. 그리고 수 년 이상 베를린 당국과 공사비용과 관련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해야만 했다. 이 길고 긴 줄다리기는 15년이란 시간이 흘러 2004년 공모전의 코디네이터이자 독일 역사학자인 라인하르트 뤼럽(Reinhard Ruerup)이 명쾌한 한 줄로 마무리 지었고, 그는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키는 데 실패하고 물러나야만 했다.

“연방 당국이 수 년 전 신축 완공을 위해 공식적으로 입찰된 가격 이상으로 더 이상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Die vom Bund vor einigen Jahren bewilligten Mittel werden für die Vorbereitung der Ersteneinrichtung des Neubaus nicht mehr ausgezahlt.” - Reinhard Ruerup, 2004

이 발언의 저변에는 건물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의미 위에 자본이 필요 이상으로 투입이 될 경우, 그 본질의 의미를 뒤흔들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강하



2008년 중앙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대학에서 건축 및 도시설계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으며 Atelier Brueckner, Hg merz Museumsgealter Architekten에서 2년 동안 실습을 한 후 현재는 Rheintuegel Severin에서 실무를 쌓고 있다.

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특정 도시 안에서 장소성이 갖는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독일인의 전형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 재해석된 현실과 장소성

이후 2005년 새로운 공모전에 제출된 309점의 설계안 중에서 23개의 본선 진출작이 선별되고, 심사를 통해 베를린 출신의 우르술라 윌름스(Ursula Wilms)와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하인레 뷔셔(Heinle Wischer)가 공동 당선된다. 정방형의 2층, 연면적 3,500㎡ 규모의 이 당선안은 유리 파사드로 외부를 구성하고 있다. 철저한 기능 중심의 공간에서 구성된 동선은 굉장히 단순화되어 정방형 구조의 건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이 공모전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공사비용은 2,000만유로(당시 환율기준 1유로≈1,500원), 공사기간은 2년이였다. 이 수치는 베를린 당국이 제시한 1,500만유로의 시공비용과 최소 500만유로/최대 900만유로의 실내공사비용의 상한선 안에서 충족되는 것이었다. 베를린 당국이 총 공사비용의 50%를 담당함으로써 쟁점은 일단락되었다. 2007년 11월 공사가 시작되어 종전기념 65주년이 되던 2010년 5월 8일 완공되었다. 과거 제국 보안본부가 서있던 자리에 남아있던 지하실 공간은 800㎡의 유리천장으로 덮인 전시공간으로 재탄생되었으며, 새롭게 자리 잡은 정방형의 2층 건물은 25,000권의 자료를 담고 있는 도서관, 전시실 2개관, 강의실 그리고 사무실로 구성되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2010년 <Topographie des Terrors>에서 처음 전시된 것은, 당시 제국 보안본부에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종사했던 7,000여명의 개인 신상정보였다. 노출콘크리트 공간에 전시된 이들의 정보는, 과거 제국 보안본부에 속해 있던 지하실 공간에서 희생 당한 15,000여명의 정치인 및 일반인의 모습이 전시되는 것과 극단적인 대립구도를 가져온다. 특별한 구성이나 장치 없이 단순한 구조와 공간구성에서 전시기획이 크게 달라졌고, 이 전시구성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당시 전시기획을 담당한 안드레아스 나흐아마(Andreas Nachama)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은 독일의 국가 사회주의, 나치즘이 근대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쉽게 잊는다. Man vergiss leicht dass der Nationalsozialismus eine junge Bewegung war” – 독일잡지 Spiegel 2010. 5. 5일자

그는 이런 주장을 통해 과거가 후대에 어떻게 조명될 수 있는지, 또 역사의 한 장면을 담아내기 위한 건축과 장소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30년간 고민했던 자신들의 신중함을 피력하였다. ㉮

